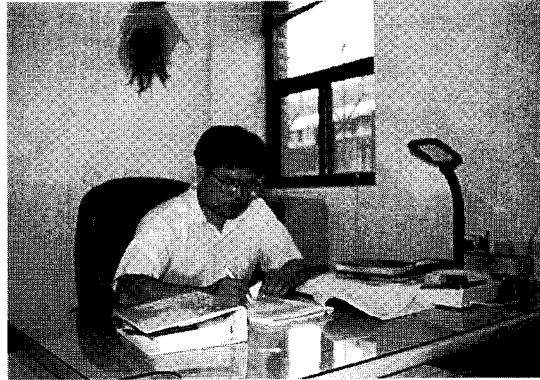


‘개별 전문역량 묶어 최고 서비스 제공’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
이명훈 소장



포장산업관련 전문 컨설팅 사업을 위해 최근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의 문을 연 이명훈 소장(40)은 고기가 물을 만난 듯 왕성한 의욕으로 분주히 활동하고 있다.

오늘날 국내 포장산업이 GNP의 2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룩했지만 질적 수준은 그에 비해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포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미흡한 것에서 우선 원인을 찾을 수 있겠으나, 종합과학인 포장의 제 분야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고 분야별로 제각각 흩어져 심한 불균형 상태에 있다는 데에 보다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기업이 포장개발이나 종합적인 포장수준 향상을 기하려 해도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포장의 각 분야별 전문가의 역량을 결집해 최신 포장기술의 보급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종합적인 포장개선 서비스를 최고의 수준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소장은 연세대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79년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KIDP)에 입사, 그동안 미국 미시간 주립대 포장학 석사과정 이수와 영국·독일에서의 포장관련 단기교육과정 수료 등 외국에서 교육연수를 받은 3년4개월여를 제외하고는 10여년간 줄곧 KIDP에

근무하면서 1백여 중소기업체 포장기술지도 등 포장분야를 두루 친착해왔다. 그러한 공부와 경험이 연구소 개설의 동력이 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포장관련 컨설팅 사업을 하는 곳은 KIDP, 한국포장기술연구소, 우진포장공업연구소, 한국포장산업연구소 등 손꼽을 정도이다. 한편 능률협회나 업계관련 단체 등에서도 부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포장분야 전문 컨설팅에 대한 기업체, 관련종사자의 용역 의뢰나 인식 수준은 아직 낮은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예컨대 얼마전까지만 해도 용역 의뢰자는 그 대가로 ‘술 한 잔 사겠다’는 식이 많았다는 이야기다.

“국내 업계 여건상, 특히 전문 컨설팅에 대한 인식과 저변이 취약한 상황에서 연구소 사업의 시작이 다소 이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분야도 서서히 문이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한편 저희도 그 문을 보다 활짝 여는데 한몫을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한국포장시스템연구소는 현재 모 업체에서 컨설팅을 진행중에 있으며, 그밖에 국책연구개발 과제로 환경관련 포장개발 추진, 완충포장관련 단행본 출판 계획을 세우고 있다.

바둑, 테니스가 취미인 이 소장은 포장시스템연구소를 장차 국제 수준의 거대한 컨설팅 회사로 키워나가겠다는 포부다.